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마흔번째>

정호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 일시 : 불기2550(2006)년 8월 19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정호 큰스님약력]

- 1973년9월5일 - 인천용화선원에서 (田)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5년 10월 -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수지
- 1976~2005년 - 용화선원, 망월사 선원, 통도사 극락암선원, 봉암사선원, 금당, 수도암, 태안사, 화엄사, 대흥사, 정각사, 불국사, 지리산 토굴등에 안거정진
- 2006년 - 용주사 주지(현)



8월 사찰환경 답사

영광 불갑사, 신천리 3층석탑, 내산서원

- 일 시 : 2006년 8월20일(일)오전7시30분
- 출발지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8월 초



우란분재에 즈음해서.....

감로향사 분향주 / 보현진열

우란분재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추선 공덕을 베풀어서 구제한다는 불교적인 의미다.

고통 받는 곳을 지옥 아귀 축생의 3악도惡途라 하며, 지옥 고통이 가장 심하다.

1. 지옥도에는 증오와 투쟁으로 설새 없는 곳으로 미움이 고통의 눈이다. 미워하는 마음과 행동이 서로 확대 재생산하며 잡고 잡혀서 죽고 사는 악순환의 현장이다.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남을 상해해서 자신이 살려는 살생의 씨가 있다.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수록 피해의식이 뿌리 깊이 박혀 방어를 위한다며 남을 공격하기 마련이다. 파괴를 일삼는다. 결국 남과 자신을 파괴시켜 인격 장애자로 전락한다. 유전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인자에 그런 선천적으로 파괴 DNA가 내재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서로 살육하는 전쟁과 파괴를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파괴와 약탈 전쟁을 혼습함으로써 각인刻印된 인자다. 개개인에게 쌓여진 업도 있겠고, 집단이나 민족 등 공업共業도 있다. 중동中東 전쟁의 배경에는 공업의 누적이 크다. 피의 보복전인데, 밑바탕에는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
2. 아귀도에는 의식주에 관련돼 지나친 소유욕이다. 분점하기 보다는 독점욕이 강하다. 남의 것마저 빼앗아 자신의 것에 보태 100%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5욕락이다. 부처님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 깊숙이 박힌 이기심 때문이라고 설하신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살기 힘들고 있는 것은 '강자의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라고 하겠다. 세계의 초강국 미국이 언제나 강자의 논리로 외교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점점 미국에게 자본이 예속되는 자본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 제국주의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강자만이 살아남는 비극을 연출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야 나 산다는 살벌한 살육의 약육강식이 되고 있다. 불교에서 보면 다 함께 죽는 일이다. 너가 살아야 나도 살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인연의 이치가 바로 인도人道임을 부처님은 벌써 2,500 년 전에 설파하셨다. 거꾸로, 자본 제국주의가 우리 사회를 휩쓸수록 상대적으로 불교의 설 자리는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보다 더 미국적인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나, 누렁둥이 얼굴이 박피剝皮를 해서라도 해야지려고 성형하는 정신이 저변에 있는 한, 강자의 횡포에 놀려서 우리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3. 축생도에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거나 모자라는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웃고 살아갈 것이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물 안 개구리 모양, 중생은 갇힌 공간에서만 있다 보면, 체험의 세계가 좁고 견식이 한쪽으로 쏠려서 그 밖의 세계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물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축생이란 답답한 우리에게 닫혀 있다는 의미다. 남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비난하거나,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 등이 모두 축생도에 든 중생의 삶이다. 자기 눈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보고 나무란다는 속담은 그런 축생도의 중생심을 말한 것이다.
4. 우란분재는 그런 3악도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중생의 해방을 위한 추선 공덕을 쌓는 일이다.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살아 있는 중생도 있지만, 7월 보름에는 특히 먼저 가신 조상 등 영가들을 위해 법요식에 맞추어 재齋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인연 있는 후손들의 정성과 공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죽은 이들이나 살아가는 이들이나, 이웃이나 우리나....한반도 같이 일정한 곳에 사는 한, 공업共業의 범주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인연의 고리에 의해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란분재는 인연법에 맞추어 우리와 가정과 사회를 복되게 하려는 거룩한 행사다. 불자들은 마음을 잘 가다듬고 법요식에 맞추어 우란분재를 올려야 할 것이다. 나무 관세음 보살!-----

경기 불교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숙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몽골 불교 유적지를 찾아서(I)



경기불교문화원장/우양금당 - 진철희

모 글 불교하면 먼저 티벳불교를 떠올리게 된다. 인도에서 건너온 티벳불교는 아티사(ATISHA)스님을 통해서 불교가 확립되고 법왕 쥬카바가 티벳불교를 개혁하여 탄트라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티벳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티벳불교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라가 징기스칸의 제국 몽골이다.

한 때는 유라시아 대륙을 부처님 손바닥위에 놓고 마음껏 주무르던 몽골불교이지만 스탈린 숙청시대 때 사회의 중추세력이었던 1만 7천여명의 스님들이 사형당하고 수천곳에 달하던 불교사원도 사라졌다.

그랬던 몽골불교가 최근 뜻있는 스님들의 원력으로 전통불교를 복원하고 각지에 흩어져있던 스님들을 불러 모으며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경기불교문화원 도반들은 몽골불교유적지 순례계획을 세워 7월 14일부터 23일(9박10일)까지 현지를 답사할 수 있었다.

지도상으로 보면 몽골은서울에서 평양,북경,도쿄,타이베이 다음으로 가까운 수도인 울란바토르이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우선 몽골이라는 국호부터가 몽고(蒙古)와 구분이 잘안되고 있으며 1990년 수교 이전까지는 70여년간의 단절기간은 우리에게 몽골이라는 나라를 한참이나 멀어지게 만들었다.

몽골(mongol)은 1206년 이후 징기스칸이 세계제국(世界帝國)을 건설한 후 고려 23대 고종 8년(1220)에 양국간에 『여·몽협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으며 사신들이 서로 왕래하였다.

그 후 몽골제국(元)은 중국대륙을 지배한지 160여년 만에 멸망하고 1336년에는 주원장(朱元璋)의 명(明)나라에 의해 다스려졌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고려왕조가 쇠망하고 1392년부터 이성계(李成桂)의 조선왕조가 그 뒤를 잇게되면서 몽골과는 국교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몽골은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을 계기로 청조(淸朝)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를 선언한 후 1921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 후 1992년에 몽골리아(몽골)를 공식국명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의 북쪽의 몽골은 1946년 몽골국이 성립되었고 남쪽 내몽골은 1947년 중국의 자치구로 전락되었다.

경기불교문화원 답사반들은 과거의 한 몽간의 문화관에서 현재의 실질적인 문화관의 개방에 발맞추어 잊혀져간 한·몽 불교사를 재조명코저 이번 답사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10)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아,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 법구경 60 -

Long is the night to the sleepless; long is the league to the weary.
long is the worldly existence to fools who know not the true Dhamma.
- The DhammaPada 60 -

현대트랜즈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생활 속의 불교 수행

헤정정사

불교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자체가 불교이어야 하는데 불교를 특수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통용되고 수행 또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 시간이 주어져야 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식들이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이 도다. 일체가 유심조다.” 하여 불교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의 불교를 소홀히 다루어 불교가 남의 이야기인양 하였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성불하실 때까지의 과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여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태자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산에서의 6년 고행은 스승을 찾아서 다니신 것으로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싯다르타의 스승들은 하나같이 힌두교의 수행승으로 과거의 업을 금생의 고행으로 소멸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여 힌두교적인 사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싯다르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세상의 50여 선지식을 찾아 육계, 색계, 무색계 등 6도를 뛰어 넘는 수행을 6년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에 선재동자 구법여행으로 보여 집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어느 스승이 평생 공부한 것을 단 3달, 혹은 6달, 1년 이내에 성취하는 경지를 이룹니다. 나중에는 설산에서는 싯다르타 이상의 스승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설산의 최고의 스승이 이룩한 비상비비상처전을 오르고 보아도 이것은 영원한 해탈이 아님을 알고 진리의 목마름으로 설산에서는 선지식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설산의 서릿발 같은 수행의 세계를 버리고 마을로 내려와서 설산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생활이 이어지는 곳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몸에 대한 억압, 고행만으로는 진리의 길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내란자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얻어먹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섯 수행자들은 싯다르타가 파계하였다고 떠나게 됩니다. 왜 이것이 파계일까요? 당시 힌두교의 수행은 만행 시에는 타인의 공양을 받지만 한자리에 앉아서 삼매에 들 때에는 마을에서 1아란야가 떨어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장소를 정하여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1아란야란 닭소리, 개소리 등 마을의 생활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수행 시에는 그 마을의 누군가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싯다르타 또한 가난한 여인의 공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수행자들은 매일 일정시간에 공양을 받습니다만, 싯다르타는 가난한 여인의 공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23일 걸려서 공양을 받거나 굶거나 하여 타 수행자에 비하여 피골이 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공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숲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이 숲을 떠나 강에서 목욕을 하고 기진맥진하여 나무에 기대에 있을 때 수자타 여인이 자신의 공양을 받을 수행자의 우유죽을 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수행자인 싯다르타를 보고 우유죽을 공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그때의 힌두교 율법에 따라서는 수자타의 공양을 받으면 파계인 것입니다. 우유죽을 먹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에게 공양을 올리던 여인이 아니라 수자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싯다르타는 “이것이 진정한 파계라면 죽 바루가 물따라 흘러갈 것이고 파계가 아니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하여 바루를 떠우니 바루는 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강을 건너 다른 수행처를 찾아 귀신이 나온다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마을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싯다르타는 굶게 되었는데 이 숲속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어서 이 원숭이들이 자기들이 먹는 과일을 싯다르타에게 공양을 올려 경전에도 붓다가야 원숭이들의 공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숲속 귀신들을 행복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악귀가 사라지고 천신이 이 숲을 지키게 됩니다. 타국 상인들이 이 숲을 지나가게 되자 천신이 상인들에게 “이 숲에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머물러 계시니 그분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두 상인이 숲속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마른 보릿가루와 꿀을 공양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공양 받을 그릇이 없음을 아시고 하늘의 사천왕이 각각 바루를 바치니 부처님께서 이 4개의 바루를 하나로 포개어서 공양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은 답례로 부처님의 머리카락8가닥을 뽑아서 이 상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상인들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수행자들이 앉아서 공양을 받으나 불교에서는 마을을 다니면서 공양을 청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불교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수행방법은 부처님이 그러하였듯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하여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불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언제부터인가 불교의 수행은 특정한 장소, 시간, 사람 등을 가려서 일정한 조건 속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중생과 함께하는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나는 왜 불자인가

본원이사 감로행/윤광숙

내가 부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이 좋아 돈도 잘벌고 나만 위해주는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아마 나는 아주 평범한 주부로서 풍요에 안주하며 살았을 것이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남편 무던히도 내 뜻과는 다른 사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고독을 즐기는, 그래서 오로지 바둑만 좋아하는 자칭 바둑기사다.

정말 맘에 안들어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

현실보다 이상만 높은 사람이라 내가 나서서 벌지 않으면 밥도 굶을 형편이니 나 역시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무엇이든 열심히 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남편이 부처님을 믿었던 과거가 있고 그 당시 나랑 함께 절에도 다닌 적이 있어서인지 내가 절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는 가끔 천수경을 곧잘 외우고는 나한테 잘 외우는지 확인해 보라고 묻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외우는지 참 신기했다.

그랬던 남편이 결혼과 함께 삼년을 못 넘기고 직장을 그만두고 절에도 안다니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결혼 후 10여년간을 티격태격하며 발전도 없는 논쟁 끝에 나는 늘 상처받고 힘들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애 잘 아는 분이 스님 법문을 들어보라고 권유해서 용기를 내어 생전 처음으로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딱딱 들어맞는지 법문의 포로가 되어 연신 고개만 끄덕이다가 나왔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 마음 깊이 간절한 기도를 해보았는지 반성해 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거라 하셨다.

그 말씀이 어찌면 그렇게도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지, 그동안 남편에게 섭했던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는 마치 눈녹는다는 표현이 그럴때 쓰는 것이리라.

지금 생각하면 아주 평범하고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내가 모르고 살았던가?

그날의 그말씀은 신선한 충격이고 행복으로의 초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불자가 되었다.

오로지 부처님께 매달렸다. 우직한 사람은 한가지 가르쳐주면 그 한 가지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모습, 그게 바로 나였다.

정말 신기한 것은 감히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내가 밖에 나가는 걸 못마땅해 하던 남편이 온순해지는 것 같았고 특히 교리 공부를 하러 절에 가도 아무소리 하지 않고 못이기는 척 넘어가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남편이 불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천수경에 나오는 "백천만겁 난조우"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그 구절을 들을 때마다 나는 행복해지고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그 어렵다는 부처님 법을 만나 공부를 하고 도반을 만나고 스님들의 훌륭하신 말씀을 들으니 식당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전생부터 부처님과 소중한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기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경 · 전 · 강 · 좌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내용 : 심신경 • 기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월) 30,000원
- 강사 : 지묵스님



사찰 순례를 다녀와서...

사찰답사반원/신 영주 불명 여실각

우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던 주중이어서 주말까지 이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그냥 걱정일 뿐 아침 7시에 흐린 날씨에 출발한 일행은 햇볕이 쨍쨍한 날씨보다 한결 가벼운 기분으로 수원을 출발 1박2일 사찰 순례팀을 태운 버스는 출발했다.

며칠동안 끈질기게 내린 비 때문인지 생각했던 인원수는 조금 안됐지만 보람되고, 즐겁고, 환희심이 생긴 사찰여행이었다.

쉽게 접해보지 않던 법화경, 유마경, 간화선등 여러 경전을 들으면서 넓고 많은 말씀 중에 법화경 사경이 마음에 와 닿는다. 법화경 사경은 한번 해 봤지만 쉽게 해석한 경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경을 할까 하는 마음의 동요도 일으키고 천년고찰 오어사, 범어사, 보경사, 보은사, 해동용궁사, 안국선원, 오어사, 언제인가 인연이 있을 가게 되겠지 했던 곳인데 가게 되었고, 물고기에 대한 설화를 들으면서 도를 깨친 큰스님의 담소가 들리는 것 같았던 사찰..박물관에서 자기 모자를 보라고 자랑한 권중서 포교사님의 너스레가 어쩌면 해박한 지식을 지닌 포교사님께 일지도 모른다는 짧은 생각도 해 보고 아담하고 깨끗한 도량이었다.

보경사는 어제까지의 비 때문에 더욱 맑게 흐르는 물과 아름다리 나무들과 귀신이 못들어가게 잡아먹는 사자상을 보면서 청정한 도량에 오염된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며, 잠시 바쁘게 살면서 참회하지 못한 걸 참회도 해 보고 ...

보은사...약간은 접하기 힘든 스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여러 방면으로 생활불교를 접하고 계신 주지스님과 어느 지인의 별장에 잠시 쉬러온 느낌을 받은

아담한 사찰에서 하루밤은 나에게도 경험 그 자체였다. 감히 부처님 계신 곳 대웅전에서 그것도 아주 편하게 쉴 수 있었다는게 나도 예전에 스님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

보은사, 주지스님의 융숭한 대접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보너스로 주신 안국선원으로 향했다.

겉에서 보아도 웅장하고 선을 위주로 공부하는 곳이라서 인지 조용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보살님들의 걸음걸이에서 선방에서의 규칙이구나 했다.

또한 장엄하고 화려한 대웅전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천상에 계신 부처님 아니 부처님의 세계는 어쩔 그럴 것이다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젊은 불자의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은 여기를 오면 괜한 생각이었구나 ..미래가 밝은 불교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하고 환희심마저 생겼다.

범어사, 학창시절부터 동경했던 사찰, 지금은 아파트 밀집지역 변화가에 있지만 왠지 정이가는 사찰.

일요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을 보면서 한번도 일요법회에 참석치 못한 나를 반성 해 본다.

해동용궁사, 강릉 낙산사에 익숙해 있는 나는 용궁사에 몇 번째 가 보았지만 매번 낯설게 느끼는건 관광지만큼 사람들이 많고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까?

1박2일을 무사히 다녀오고 매번 좋은 곳을 선정해 주시는 문화원 원장님, 간사님, 매번 유익한 자료를 준비하는 권중서 포교사님 아무 탈 없이 다녀온 사찰순례팀 회원여러분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경기 불교



7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7/3~7/31) 85명 1,853,06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장용집, 홍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윤영무, 정무근, 권중서, 이상범, 강재수, 김기현, 헌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김병옥, 이난호,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이태갑, 송호윤, 김용필,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이남덕,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이학운, 최숙련, 강영식, 김경수, 염규용,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심화식, 진기홍, 조남중, 정현숙, 차용희, 이상남, 정경화, 서희호, 함대식, 장영남, 이기원, 어윤식, 이민수, 정재안, 정효진, 신윤식, 박홍근, 안병선, 박상우, 주인수, 김지은, 손용식, 조권형, 이수교, 김묘정, 김명옥, 김혜자, 이사현, 신현자, 박정자, 공석남, 서상열, 김재숙, 배정희, 이경원

기본교리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8월 30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등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50,000원
- 강사 : 포교사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북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서른아홉번째)

불기2550(2006)년 7월 8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혜정법사님의 “밀교란 무엇인가”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7월 사찰순례
(오어사,보경사,안국선원,
범어사,해동용궁사)

7월 사찰답사는 포항의 오어사, 보경사,보은사를 거쳐 부산의 안국선원,범어사,해동용궁사를 다녀왔습니다.



♠ 몽골-바이칼호수 성지순례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7/14~23 (9박10일)까지 몽골-바이칼호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진철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16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셨습니다.

♠ 백중(우란분절)법회

불기 2550년 8월 8일(음7월15일)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법회가 있었습니다.



신/행/상/담/실/시

본원에서는 나눔의 생활화의 일환으로 신행상담을 전문상담원을 모시고 실시합니다.

상담내용은 일반불교교리, 가정문제, 법률상담, 정신건강상담, 결혼상담 등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전화는 031)251-1083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교상담개원 02)737-8803
- 한국여성불자연합회 행복한 가정상담소(02)738-558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02)2697-0155

교/계/소/식

▶ 법정 중정예하 하안거해제 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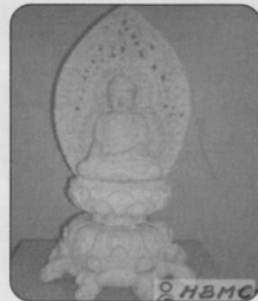
병술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는 송대 부운선사와 보원선사의 일화와 사비선사의 착어를 인용한 법문을 통해 “노조가 벽을 향함은 통하지 않는 소식이거늘 발을 옮겨 앞으로 가려면 한바탕 가시밭”이라고 설파했다.

(魯祖面壁不通消息, 移步進前一林荊棘)



▶ 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8월30일~ 9월 5일 인사아트센터서 전시될 제 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대상은 남진세의 ‘석가모니불’이 선정되었다. 대상작 ‘석가모니불’은 재료가 거칠고 크기가 작은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토속적인 신앙과 투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석가모니불’은 한국의 미를 토속적으로 표현하며 연화좌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로 교화를 하고 계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2006 만해축전 ‘대상 시상

국내 문화학술제인 ‘만해축전’이 올해도 8월11일부터 13일까지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막된다.

12일 오전 11시 제1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만해대상 포교부문에는 남바린 엔흐바야르(Nambaryn Enkhbayar)몽골공화국 대통령이 수상하고 학술부문에는 권영민 서울대교수, 문학부문은 로버트 핀스키(robert Pinsky)미국 계관시인과 황동규 시인(서울대 명예교수)이 각각 수상한다.

또, 만해대상 평화부문에는 김지하 시인이, 만해대상 실천부문은 박원순 변호사가 수상한다.

▶ 킨텍스 2006년 대한민국 명인전

대한민국명인전이 고양 킨텍스 전시실에서 2006년 8월 1~20일까지 1,500점이 전시된다.

이중에는 30~40세에 달하는 대형 오백 나한도를 비롯한 봉정사 극락전 오현등 미륵반가사유상등 잊혀져가는 불교문화의 각종 유산들을 현대에 되살려 한자리에 모았다.

문의전화. (031)995-8401

- 이달의 베스트 불서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 신(新)유식학 (밀양, 고목)

. 목조선 입문 (석란, 김호귀)

. 일연을 묻는다 (현암사, 고운기)

.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오후에, 만공스님)

2006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6년 6월~9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30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묵스님	30명	16주 120,000원	심신경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8월 하순 예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60,000원	찬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23개강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30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8/24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8/24개강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이영준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정호큰스님	100명	무료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8월 19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영광 불갑사, 신천리3층 석탑, 내산서원	8월 20일 오전 7시30분 출발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